

(다) (수) (화) (시) (리) (즈)

6월의 벼 농사 관리

농촌진흥청
미산지도과장 이효근

6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이다. 논에 2모작으로 심었던 밀, 보리, 감자, 마늘, 양파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류를 빨리 거둬들이고 모내기를 해야 할 때이며 5월 중에 심었던 1모작 논의 기음약뿌리기, 새끼칠거름주기 그리고 농약뿌리기 등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농사일은 알맞은 때가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하며 모든 농사일 하나하나를 정밀하고 차질없도록 하여야만 다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1. 모내기

가. 1모작논

1모작논에 아직 모내기 하지 않은 곳은 하루라도 빨리 마치도록 하여야 하며 중·북부지방에서는 6월 5일 남부지방에서는 6월 10일까지 끝내도록 한다.

나. 2모작논

(1) 알맞는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

어지면 하루라도 빨리 심는 것이 좋다(이 때에 모가 어리더라도 상관없다).

중부지방은 6월 20일 남부지방은 6월 25일까지가 정상 소출을 올릴 수 있는 알맞은 때이므로 앞그루작물을 빨리 거둬들이도록 하고 수박, 침외 등 극히 늦은 작물은 7월초까지 심게 되나 이 때에는 극히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 그리고 못자리기간이 긴 모를 배게 심도록 해야 한다.

(2) 심을배기

2모작 논에서도 1모작과 같이 다

수확하기 위해서 심은 포기수와 모수를 늘려 본논에서 새끼치기 하지 못한 출기수를 모수로 보충해 주도록 한다.

모 심음배기

모 내 기 때	평당포기수	포기당 모 수
6월 상, 중순	80~85	4
6월 하순	85~90	5
7월초, 산간, 첨자재	100~120	6

2모작에 알맞는 모는 2분정도 새끼치기가 된 것이며 포기당 모수는 새끼치기한 가지를 셈하지 않도록 한다.

(3) 모심는 양식

헛새끼치기를 억제하고 헷별 쪼임이 좋으며 농작업하기도 편리한 병목식(並木式)으로 심는 것이 좋다.

1모작논에 쓰였던 뜻줄을 그대로 쓰지 말고 치수가 좁은 2모작에 알맞는 뜻줄을 쓰도록 한다.

알맞는 뜻줄

장줄 30cm × 등줄 13.5cm = 81포기/평				
" 27	×	" 14.5	= 84	"
" 27	×	" 13.5	= 90	"
" 24	×	" 13.5	= 100	"

(4) 특히 주의할 일

모는 2~3cm 깊이로 극히 낮게 심어야 한다. 모를 깊이 심으면 새끼치기가 덜 되고 뿌리가 2단으로 나

와 특히 기온이 높을 때 조생종 품종은 불시출수를 할 염려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를 얇게 심기 위해서는 써래질을 정밀하고 균형하게 잘 하고 물을 거의 없는 상태로 빼고 모를 심도록 한다(모심은 다음에는 바로 물을 깊이대어준다).

모내기가 늦어져서 모가 지나치게 자랐을 때는 잎의 부분을 잘라내고 심은 것이 좋다.

2. 밀거름 주기

가. 주는 양

1모작에 비하여 2모작논은 본논에서 자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그만큼 거름을 덜주어야 한다(많은 농가는 모내기가 늦으면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거름을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으나 이는 도열병, 흰빛잎마름병의 발생원인이 되고 극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알맞는 거름양

구 분	주 는 양		
	복합비료	무게	포대 수
신 품	조 생 종	17-21-17	41kg
	모 작 중·만 생 종	17-21-17	44
종	조 중 생 종	21-17-17	47
	모 작	21-17-17	47
제 품	1 모 작	17-21-17	32
	2 모 작	21-17-17	37

보심기 전에 논이 아주 잘 말랐을 때(25~30일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전토효과가 나타나므로 거름을 20~30% 줄여서 주어야 한다.

7월에 심은 늦심기 때도 그 20~30% 줄여서 주도록 한다.

나. 주는 요령

밀거름이 논 갈이흙 전체에 고루 섞어주도록 주어야 한다.(전총시비)

앞작물을 거둬 내고 밀거름을 고루 뿌린 다음 논을 갈도록 한다. 되도록 마른갈이로 논을 간 다음에 물을 대는 것이 좋다.(물은 5일내로 대어주어야 한다)

거름을 뿌리고 로타리경을 하는 것

이 좋다.

밀거름을 써래질한 다음에 주면 거름이 결흙에만 주어지게 되어 질소성분은 암모니아태가 초산태로 바꿔져서 땅 속으로 스며 빠져버리고 인산과 칼리성분은 결흙에만 잘 들어붙어 벼 뿌리가 뻗은 흙속에 들어 가지 못하여 벼가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용율이 낮아진다.

모래논과 개막은 논을 제외한 모든논은 반드시 밀거름을 땅 속에 넣어주도록 해야 한다.

3. 기음약 쓰기

가. 기음약 쓰는 요령

본답제초제 사용법

제초제명	대상 잡초	10a당 사용량	사용시기
마세트입제	1년생 잡초	3kg(점질토4kg)	이앙전 1~2일, 이앙후 4~5일
탁크입제	1년생 화본과(피) 및 광엽잡초	3kg	이앙직후~이앙후 7일
엠오입제	1년생 화본과(피) 및 광엽잡초	3kg	이앙직전~이앙후 6일
사단입제	1년생 잡초	4kg	이앙후 5~10일
사단에스입제	화본과 및 광엽잡초	2kg	이앙후 10~15일
론스타유제	화본과 및 광엽잡초	500cc(원액)	셔래질 직후 흙탕물에 쳐티
아비로산입제	1년생 및 다년생 잡초	2kg	이앙후 5~10일
밧사그란입제	"	3kg	이앙후 15~25일
밧사그란액제	"	400cc	이앙후 20~30일
데스단입제	"	3kg	이앙후 5~10일
모개산도입제	"	3kg	이앙후 5~7일
모다운입제	"	3kg	이앙후 3~6일

제초제명	대상잡초	10a당 사용량	사용시기						
하이탁크 임제	1년생 화본과 (피) 및 꽁볍잡초	2kg	이앙후 5~7일						
수중이사디(진) 수화제	광엽잡초	250g	이삭폐기 35~45일전						
이사디아민염 액	"	70cc	이삭폐기 35~45일전						
마메트 임제	답작잡초	3kg	이앙후 10~15일						
마세트 300유제	수도본답잡초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사양 토</td> <td>양토</td> <td>첨질 토</td> </tr> <tr> <td>400 cc</td> <td>500 cc</td> <td>600 cc</td> </tr> </table>	사양 토	양토	첨질 토	400 cc	500 cc	600 cc	썩폐질 직후
사양 토	양토	첨질 토							
400 cc	500 cc	600 cc							
스템 F-34 유제	피	600cc	피의 잎이 1~2매						

나. 특히 주의할 점

기음약을 쓸 때는 반드시 논물을 3cm정도로 낮게 대어 놓고 약을 뿌리도록 한다.

기음약을 뿌린 논의 물은 3~4일간 가두어 놓도록 한다.

모래논에는 쓰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잎에 물기가 있을 때는 뿌리지 않도록 한다.

4. 새끼칠거름 주기

가. 주는 대상

새끼칠거름은 6월초까지 일찍 모내기한 논에만 주도록 한다. 2모작 논과 같이 6월중순 이후에 심은 논에는 이 거름을 주지 않아야 한다.

새끼칠 거름을 늦게 주면 헛새끼치기만 돋겨 되고 잎도열병의 발생이 염려되면 벼알의 여울도 극히 나빠진다(새끼치기한 줄기에 이삭이 달

리려면 이삭폐기전 30일까지에 줄기의 키가 본래 줄기 키의 3분의 2이상 자라야 하고 그 줄기에 잎이 3배 이상 달려야 하는데 이 정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끼치기한 후 15일 이상 걸리는 것이다).

모래논과 개막은 논에는 거름을 여러차례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모작 논에서도 새끼칠거름을 주게 된다.

나. 거름주는 양

보통논의 1모작에 주는 새끼칠거름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새끼칠거름 기준량

구분	10a당 거름양		
	유안일때	요소일때	
실품종	조생종 13kg(7회)	6kg(4회)	
중·단생종	14 (8회)	7 (5회)	
재래품종	중생종 10 (6회)	5 (3회)	

주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

향보다 많이 주기 쉬우므로 되도록 유안을 주도록 하고 반드시 집에서 정확히 계량하여 주어야 할 양만 가지고 나가도록 한다.

기온이 낮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는 날이 많을 때는 주지 않거나 양을 줄여 주도록 한다.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에는 주지 않도록 한다.

다. 거름주는 요령

논 물을 3cm정도로 데고 물고를 막아 놓고 잎에 물기가 없을 때 거름을 골고루 뿌려 준다.

모년후 10~14일 사이에 주도록 하고 그 보다 늦게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늦게 주면 헛새끼치기만 돋게 된다).

기음약을 쓰지 않고 논을 매어둘려고 할 때는 새끼칠거름을 뿌린 중·음논을 매어주도록 한다.(이 때에 중경제초기를 사용할 경우 벼의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물 관리

가. 1 모작논

모내기를 일찍 끝낸 논에는 물을 계속대어주어야 하나 물결려대기를 하도록 한다. 즉 3~4cm 깊이로 물을 대고 물고를 막아 놓은 다음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 물이 없어지면 1~2일만에 다시 대어

주는 요령으로 물을 대어준다.

특히 산간지대 찬물이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논 물의 온도를 높이도록 유의해야 하며 물을 계속흘려대기하지 말고 반드시 결려대기를 하되 새물을 넣을 때는 윗논에서 대지 말고 수로를 통하거나 논 가장자리에 좁은 갈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으로만 물이 흐르도록 해서 논 전체의 물이 움직여서 물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논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이 고여있고 햇볕을 잘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수로의 잡풀을 항상 깨끗이 베어서 수로의 물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나. 2 모작논

모를 심을 때는 얕게 심기 위해서 물을 거의 빼고 심어야 하지만 심은 다음에는 잎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물을 모 키의 절반정도 까지 깊이 대어준다(기음약을 뿌릴 때는 반드시 2~3cm로 낮게 대어 준다).

모년후 4~5일이 되면 물을 낮게 대어주며 그 방법은 1모작논과 같이 물결려대기를 해 준다.

6월 하순 이후 늦게 모내기를 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통 논물의 온도가 35°C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물흘려대기를 하여 물 온도가 30°C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